

# 삼성서울병원 25돌, 병원문화 혁신 예고 “환자 중심·5G 진료 환경 구축”

## ‘미래 의료의 중심 SMC’ 발표

### 디지털 병리데이터 실시간 판독 등

개원 25돌을 맞은 삼성서울병원도 한 번 병원 문화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8일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비전 ‘미래 의료의 중심 SMC’를 발표했다. 슬로건은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이다. 삼성서울병원의 도전 정신과 상생, 공존의 가치를 담았다. 20년 전인 1994년 11월 9일, 개원 당시 국내에서 생소했던 고객센터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환자 경험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사적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KT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5G 진료 환경 구축에 가장 먼저 뛰어 들었다.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리모델링이다. 일원역 캠퍼스와 양성자 치료센터, 암병원 등에 KT 5G 통신망을 활용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양성자 치료정보에 대한 실시간 치료 계획 확인 ▲디지털 병리 데이터 실시간 판독 ▲수술 실시간 교육 및 협진 등을 우선 추진 중이다. 특히 유리 슬라이드 안에 머물러 있던 방대한 양의 병리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원장이 8일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증, 고난이도 환자 치료에 전념하기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상호 유기적인 진료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외래, 입원, 검사 등의 수요 예측 시스템을 통해 환자 치료와 검사, 입원 및 외래 공간을 환자 동선에 최적화하고, 재 교수 연구실, 행정 사무실을 비롯한 비진료 공간을 새로 건립한 일원역캠퍼스로 이전하는 등 밀착업이 한창이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최신 ICT 기술도 적용하여 우리 병원의 미래를 책임질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며 “동시에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 질환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키고 투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개원 25주년을 맞은 삼성서울병원은 또 한 번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은 전 구성원의 호칭을 ‘선생님’으로 단일화하고, 병원내 모든 직종을 ‘케어기버(Caregiver)’로 새롭게 정의했다. 케어기버는 환자 경험을 강조한 말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최상의 치료 성과를 만드는 삼성서울병원의 최고의 전문가를 뜻한다.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상호 존중,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GC녹십자, 中 최대 O2O기업과 의료 질 높인다

메이투안디엔핑 이용자, 연간 4억명 中 고객에 의료기관 추천·사전 상담

건강관리 전문기업 GC녹십자헬스케어는 최근 중국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기업 메이투안디엔핑과 한국의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메이투안디엔핑은 연간 4억명이 넘는 거래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 최대의 O2O 서비스 기업이다. 중국 내에서는

식배달부터 차량과 자전거 공유 서비스, 의료, 호텔, 여행 등 200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양사 간 협력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뤄졌다.

양사는 메이투안디엔핑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GC녹십자헬스케어가 보유한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GC녹십자헬스케어는 지난 2013년부터 중국 고객 전담부서를

만들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부터 의료기관 추천,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 입국을 앞둔 중국 고객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과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 추천 및 사전 상담이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부터 건강검진센터, 피부과, 치과, 안과, 성형외과 등의 진료 예약까지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 시그니엘서울

### ‘디저트 성지’ 각광

시그니엘서울이 초고층에서 즐기는 화려한 전망과 미쉐린 3스타 야니알레노 셰프의 디저트가 ‘럭셔리한 디저트 성지’로 각광받고 있다.

10일 시그니엘서울에 따르면 79층 더라운지의 시그니처 디저트 애프터눈 티 세트 ‘르 구페 시그니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전년 같은 기간(1월~10월)보다 매출이 약 20% 상승했다.

르 구페 시그니엘은 국내에서 유일한 정통 프랑스식 애프터눈 티 세트다. 부드러운 갠도바투, 사과 타틴, 푸아그라 등의 프랑스 디저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인용 기자

## 대웅제약, 약대생 인턴십 참가자 모집

8주·15주 동안 실무 경험 기회 제공

대웅제약이 오는 18일 까지 약학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화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Pharm. DW (이하 팜 DW)’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웅제약의 ‘팜 DW’는 약학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실습기간에 따라 8주 또는 15주로 구성된 인턴십을 제공해 의약품 연구와 생산, 마케팅, 품질관리와 유통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대웅제약만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역시 약학대학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약 50명을 모집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2020년 1월부터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최대 3개월 동안 대웅제약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웅제약은 실습기간 이후 우수한 평가를 받은 수료자에게 채용 선발과정에서 일부 전형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는 상시 채용에서도 지난 팜 DW 우수 실습생들에게 서류전형 및 인적성 전형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팜 DW 프로그램은 대웅제약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이루어진다.

/이세경 기자

# 카강스족·카공족·코피스족 ‘커피숍의 진화’ 끝이 없네

밤낮이 다른 독특한 콘셉트 카공족 메인 타깃, 특화 매장 배달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커피 프랜차이즈가 다양한 ‘커피 족(族)’들을 위한 특화 매장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가 여행의 주목적인 ‘카강스족’부터 카페에서 공부하고 업무 보는 ‘카공족’과 ‘코피스족’,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족’까지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 강화에 나서 모습이다.

최근 카페투어가 핫한 여행 트렌드로 주목 받으면서 카강스족을 겨냥한 특화 매장이 주목 받고 있다. 다날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달콤커피는 최근 부산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낮과 밤이 다른 독특한 콘셉트의 매장을 선보였다. 낮에는 인스타그램머블한 카페, 밤에는 트렌디한 라운지 바로 변신하는 이 매장은 카강스족 취향을 저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필로티 구조가 적용된 달콤커피 부산송정점 매장 전 층에서는 아름다운 송정 바다의 파노라마 오션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야외 테라스에는 아기자기한 미니 풀장부터 라이브 공연이 가능한 DJ 부스가 마련되어 마치 해변 라운지 바에 온 것 같은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글로벌 합합레이블 ‘하이어뮤직’과 함께한 비강스 파티 콘셉트의 달콤커피 배란 다라이브가 성황리에 열리며 카강스족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

투썸플레이스도 카강스족을 위한 다양한 휴식, 힐링 요소들을 갖춘 특화 매장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에 위치한 투썸플레이스 기장일광해변점은 3층 건물의 단독 공간에 투썸탑과 인피니티풀을 배치해 멋진 오션뷰를 즐길 수 있다.



달콤커피 부산송정점 /다날

매장 내 콘셉트 확보나 1인 좌석 구비를 넘어, 카공족 전용 매장이나 직장인을 메인 타깃으로 한 사내 카페 매장을 선보인 사례도 있다.

탐앤타스는 지난달 건대입구에 카공족 특화매장인 ‘다운타운탐’을 오픈했다. 매장은 1, 2층 구조로 지정석과 자유석 포함 총 106석의 규모로 조성됐다.

커피 소비가 많은 직장인 ‘코피스족’들을 위해 사내 카페를 중심으로 매장 확대에 나선 브랜드도 있다. 로봇카페 ‘비트’는 24시간 무인화 운영과 앱 주문 편의성, 2000원대 고품질 커피라는 장점을 무기로 전국 50여개 매장 중 60% 가량을 기업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KT, 신한은행, SKT, 삼성생명 등 다양한 산업군의 코피스족들에게 월 평균 10만잔 이상의 커피를 제공하는 등 카페 업계 최초의 상용화된 푸드테크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매장 수를 늘려가고 있다.

홈카페 문화가 정착되면서 집에서 다양한 커피를 즐기길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서울 수도권 매장 중심으로 진행했던 배달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전국 매장으로 확대 시행했다. 카페베네도 올해 요기요와 서비스 제휴를 통해 수도권 매장을 중심으로 커피, 빙수, 디저트 등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8~9일 서울 송파구 키자니아서울과 경기도 가평군 클로버리조트에서 개최한 ‘미래지킴이 캠프’에 참여한 직원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미래지킴이 캠프 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8~9일 서울 송파구 키자니아서울과 경기도 가평군 클로버리조트에서 ‘미래지킴이 캠프’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 및 유관기관 직원 및 자녀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개그맨 이재성의 진행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직업 체험과 건강한 숲 속 놀이, 프랑스 문화 체험 등으로 꾸며졌다.

이번 행사는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한 ‘다함께다가치(value) 꿈

꾸는 키자니아 - 리틀포레스트 캠프’를 주제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할 수 있는 3단계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은 70~80가지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키자니아 서울에 방문했다. 키자니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요리’를 주제로 리틀포레스트 요리 대회를 갖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뷔페프랑스에 방문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문화체험과 공연을 즐겼다.

/이세경 기자